

## 비밀의 정원

어린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몇몇 구절은 가볍게 스쳐 가면서도 영혼에 깊은 흠을 남기는 법이다.

[지금은 허허벌판처럼 보이지만 꽃을 심어서 피우고 나무에 녹음이 우거지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정말 멋진 정원이 될 거야. 이 정원을 보는 누구든 병이 대번에 나을 수밖에 없겠지.]

네인은 그 동화의 스토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고 제목도 종종 헛갈렸으나— 비밀의 정원이었던가, 비밀스러운 정원? 심술궂은 여자애와 남자애가 나왔지, 둘이서 정원을 가꾸며 신나게 간식을 먹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확실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절대 힘들여 검색하지 않는 그 정도의 존재감이었다— 희한하게 어떤 장면은 바로 오늘 읽은 것처럼 상상할 수 있었다. 메마른 황무지와 같은 정원 말이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정원을 서툴게나마 가꾸기 시작한 데에 영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물론 네인은 처음부터 정원에 눈길을 주었던 건 아니었다. 그는 다시 돌아온 머글세계에 놀랍게도 약간의 멀미 증세를 느끼고 있었다. 라제쉬에게 말할 수는 없었지만, 현재 서있는 고도에 적응하지 못 한 사람처럼 이따금 귀가 멍멍하고 숨이 갑갑한 증상을 느꼈으나 별로 대단하지 않은 걸로 치부한 채 현실에 적응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제가 우선 자리를 잡아야 라제쉬 역시도 일상에서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을 거란 생각하에, 그는 빠르게 머글 세계에 적응했으나 이따금 드는 울렁거림과 짧은 이명은 존재를 잊어갈 때면 잠깐 재발했다. 빠이. 하고 아주 짧게, 괴롭지 않게, 그러나 거슬릴 정도로만.

그래도 아직 괴로움에 젖은 라제쉬에 비하면 태연하게 머글 세계의 런던에 적응해가던 중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다. 라제쉬 본인은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 모르겠다. 어쩌면 기억하지 못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네인은 똑똑하게 기억하고 있다.

직장이 끝나 퇴근하는 길이었다. 얼른 집에 가야겠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코너 길의 식료품점에 시선이 미쳤고, 생각해 보니 냉장고 안에 음식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마법사 세계와 달리 머글세계에는 저절로 채워지는 냉장고 따위 없으니 식료품이 떨어지면 알아서 채워넣어야 하는 법이다. 그러면 사가야겠지, 당시에는 스스로 그 집을 나와 신선한 식재료를 고르는 라제쉬의 모습이 상상이 가지 않았으므로 네인은 식료품점에 들어갔고, 함께 먹을 음식을 고르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 그들의 상황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라제쉬는 도통 한 그릇을 제대로 비우는 법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입맛에 맞을 음식을 고르기 위해 네인은 꽤 오랜 시간 서서 고민했다. 그러느라 제가 퇴근한 지 40여 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잊었다. 심지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네인이 양팔에 한 보따리씩 짐을 지고 돌아왔을 때 라제쉬는, 그들의 작은 정원을 지나쳐 바로 현관문 안쪽까지 나와 있었다. 차라리 길거리를 나와 헤매는 게 나았을 꼴로. 붉은 눈을 형형하게 빛내며 정확히 제가 들어올 길을 미리 짚어 갈기갈기 찢는 듯한 차가운 얼굴로 라제쉬는 말했다.

‘오 분만 더 늦었으면 뛰어나가서 아무나 찢러 죽이려고 했어.’

네인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느낀 건 슬픔이었다. 누군가를 죽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제 연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니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때 주문 아닌 다른 수단을 쓰는 점도 아니고 그저.

‘발... 발에서 피가 나잖아. 라제쉬.’

라제쉬가 맨발로 정원을 헤매느라 발바닥이 피투성이인 걸 발견한 덕이었다. 그가 뭐라고 했

는지는 잘 새겨 듣지 않았다. 네인은 손에 들고 있던 걸, 그게 무엇이든, 아무렇게나 쏟아놓고 한쪽 무릎을 꿇었다.

‘적어도 신발을 신었어야지. 아프지 않아?’

‘이판 게 신경 쓰일 리가 있겠어? 네가 나를 버렸는데.’

생필품을 살 때 구급상자를 샀어야 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 네인은 제 머리를 가볍게 치고 싶었다. 거즈나 붕대 따윈 있을 리 없기에 제 코트 안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라제쉬의 맨발을 감쌌다.

‘저녁거리를 사느라 늦은 것뿐이야. 난 널 떠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

기묘한 광경이었다. 깨진 대리석과 유리 조각과, 자갈 그리고 모래로 가득했던 새카만 흙바닥에서 꿈틀거리던 새하얀 열 개의 발가락. 뿌리를 잃고 떨어져 나온 피아노 건반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절명해가는 모습과 같았던.

네인은 그제야,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다듬어가던 정원이 처음보다 조금 더 지저분해졌다는 걸 발견했다. 애써 먼지를 닦아냈던 대리석 석상은 대체 무엇을 휘둘렀는지 몰라도 죄다 다리가 부서진 채 엎어졌다. 바로 고개를 돌린 순간에는 '무엇'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정원용 삽과 파이프였다. 그것들이 갓 뽑아내 쌓아뒀던 잡초 위로 아무렇게나 나뒹굴었다. 총체적 난국 같은 모습이었다. 이것들을 어디서부터 다시 정리해야 할지 고민하는 네인에게 라제쉬가 비웃는 듯 흐느끼는 듯 웃었다.

‘그렇게 거짓말한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지.’

라제쉬의 잠긴 목소리가 흘렀다. 버려진 정원 속 부서진 대리석상의 파편 같은 열 개의 발가락을 하나하나 닦아주며 네인은 왜 이렇게 슬픈지, 그리고 왜 이렇게 이 사람은 스스로를 부술 수밖에 없는지 생각했다. 하지만 당장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그렇다면 우선 정원을 정리하자.

네인은 다시금 엉망진창인 정원을 정리해야 한다고 깨달았다. 물론 지금까지도 적당히 정원을 정리하는 시늉을 하기는 했다. 다만 그것은 철저히 라제쉬의 기분을 배려한 행위였다. 혹시나 제가 없는 집에 남은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문득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광경이 새까맣게 썩어가는 흙과, 기분 나쁘게 꿈틀대는 벌레와, 조금씩 갇아먹혀 부서져 내리는 동상뿐이라서 그래서, 나쁘지 않았던 기분이 가라앉고 다시금 슬퍼진다면 견딜 수 없을 거 같았기 때문에. 적당히 봐줄 만큼만 정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망가진 석상을 밟고 뛰어나오느라 라제쉬의 맨발이 찢어져 2주간 족히 붕대를 감아야 했던 날. 더 이상 제가 지팡이 한 번 휘둘러 연인의 상처를 낮게 해줄 수 있는 마법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그 날 이후. 네인은 정원을 정리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한때는 분명히 아름다웠을 테지만 머글인 전 주인이 집을 떠난 지는 몇 년이 족히 지났고 당연히 상태는 심각했다. 커다란 돌과 깨진 대리석을 골라내는 데에도 한참이 걸렸다. 그리고 대리석마다 점점이 찍혀 있는, 작고 뭉개진 핏자국을 보면서 네인은 이 정원을 부드러운 흙과 아름다운 꽃으로 채워야겠다고 생각했다. 맨발로 밟아도 다치지 않도록.

물론 머글식으로.  
이게 문제였다.

다음 날부터 네인은 정원을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는 동안 라제쉬는 작은 테라스에 앉아 네인이 하는 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처음에는 도와주려는 것 같았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거들지 않고 조용해졌다. 물론 처음부터 라제쉬의 가드닝 실력이 전문가 수준이리라곤 기대하지 않았으나 꼼꼼한 손재주를 생각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았을 것이다. 그렇게라도 몸을 움직여 도와준다면 건강에도 좋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처럼 라제쉬는 그다지 협력적인 태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시야에 있는 걸로 만족하고 묵묵히 정원의 흙을 고르는 걸로 시작해서 계절이 한 번 바뀔 때쯤. 네인은 자신이 심은 모종의 이름을 그제야 알았다. 메리골드였다.

\*

라제쉬를 위한 정원에는 규칙이 여러 가지 있었다. 절대로 가시나 거친 식물은 들어오지 않을 것. 무심코 한 번 심었던 장미는 만개할 때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으나 마지막이 좋지 않았다. 장미넝쿨이 만개한 날 라제쉬가 발작했던 것이다. 무슨 이유였더라? 기억나지 않는 어떤 이유였겠지. 무슨 일이든 일어나고자 할 때는 그저 거기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유가 충분한 법이다. 다만 선명히 기억나는 점은 라제쉬의 발과 다리에선 장미꽃잎보다 많은 피가 흘렀다는 점이다. 네인은 그날 장미덤불을 모두 뽑아버렸다. 따라서 그 흔한 장미 하나 없는 정원에서 두 사람은 그럭저럭 무난하게 지냈다. 지팡이를 태운 재를 먹은 정원에서.

고개를 아무리 쳐들어도 해바라기보다 낮게. 아무리 가시를 세워도 장미보다 약하게. 말을 할 수 있었대도 입을 열지 않았을 그들의 정원은 조용했다. 이따금 지나치게 온순한 식물들만 모아둔 제 정원이 커다란 테라리움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지만, 유리 온실이라도 라제쉬가 안전하다면 됐다. 자연스러운 아름다움도 아프지 않고 괴롭지 않은 사람들의 특권이나 마찬가지다.

다만 확실히 머글 세계로 나온 건 잘한 선택인 듯했다. 라제쉬는 사흘에 한 번쯤 울부짖으며 모든 걸 건디지 못하는 사람처럼 구는 걸 그만두었다. 대신 예전이라면 비명을 질렀을 시간에 창가에 앉아 바깥을, 정원을, 더 나아가면 제가 앉은 머글세계를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적어도 더는 스스로를 부수지 않았다. 그러자 그들만의 공간에 일어나는 파문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방울 외엔 그려지지 않게 되었다.

정말로.

정말로 고요한 생활이다. 반쯤은 물에 잠겨 수면 위를 올려보는 것처럼 모든 소리는 귀를 스치고 어떤 진동도 살가죽 바깥의 일이다. 그리하여 평화로우면 평화롭다고 할 수 있을 생활이지만 라제쉬는 부쩍 피곤해했다. 활동량 자체가 급격히 줄었음에도 희한하게 피로를 심히 느끼는 모양이었다. 곤두서서 스스로를 잡아 뜯는 것보다는 낫지만 종종 그 눈에 피곤함이 어려 어쩔 줄 모르는 게 느껴졌다. 품에 꼭 안고 재우면, 잘 자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잘 자고 있나?

네인은 라제쉬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아주 작은 손짓이었지만 라제쉬는 금방 눈을 뜨고 초점 없는 눈동자를 굴렀다가,

“비.”

작게 중얼거렸다.

“비?”

“비가 오고 있어.”

네인은 귀를 기울여보았다. 정말 그랬다. 안개처럼 날리는 기분 나쁜 비가 아니라 제대로 생명력을 머금고 떨어지는 비였다.

“정원이 한층 더 싱싱해지겠다, 그렇지?”

“네가 정원 일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줄은 몰랐는데.”

라제쉬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다.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애정과 관심을 쏟는 모든 대상에 그런 반응이었으므로, 네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정원을 사랑하는 건 아니다. 다만 정원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을 뿐. 그 차이점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라제쉬에게 애정과 관심이 유의미한 구분이 아닐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는 라제쉬의 갈색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모았다가 헤치길 반복하며 생각했다. 수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식물들의 뿌리가 썩어버리겠지. 적당히 비가 그치면 바로 수로를 정

비하고...

“또 정원을 생각하고 있구나.”

라제쉬가 네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아주 차가운 손이었다. 흠을 한 줌 쥐었을 때처럼. 느릿하게 어깨를 훑다가 차츰 배 위까지 올라오는 그의 몸은 언제나 그렇듯 서늘했다. 흠 속에 누웠을 때처럼. 그렇게 생각하다 네인은 무심코, 지팡이의 잿가루가 섞인 흠은 따뜻할지 차가울지 궁금해졌다. 그리고 라제쉬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표정을 기가 막히게 알아보는 편이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정원 일에 취미를 붙일 줄은 몰랐어. 네가 꽃들을 이렇게 신경 쓸 줄 알았으면 진작 정원에 불을 질렀을 텐데.”

라제쉬가 아직 어두운 창문 밖을 바라보며 피식 웃었다.

“하필 비가 오니 지금 불을 지를 수는 없겠어.”

“라제쉬, 내가 정원을 좋아하는 건...”

네인은 한참 동안 말을 골랐다. 머뭇거리는 제 입술에 라제쉬가 차가운 입술을 오랫동안 눌렀다가 떼어낸 이후에야, 사실은 입을 막혔던 건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지만 떠오른 게 있었다.

“보육원.”

“뭐?”

“보육원에서 갖고 있던 동화책이 생각나.”

라제쉬가 멈칫했다. 네인은 라제쉬를 물끄러미 올려보았다. 한때는 제가 갖고 싶은 모든 게

저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거의 신성하게끔 여겨졌었다. 라제쉬의 붉은 눈도 따뜻한 온기를 품은 채 태양처럼 그의 동생을 보듬었으리라. 그 동생과는 저녁 식사로 나온 스테이크가 누구 것이 더 크고 작은지 따워로는, 매일 아침 주어지는 수건의 할당량으로는 더더욱 싸울 일이 없었을 터였다. 라제쉬는 동생이 갖고 싶어하는 장난감은 웃으며 양보했을 테고 그 동생이 읽고 싶다는 책은 기꺼이 펼쳐 물고기 지느러미처럼 차갑고 미끌미끌한 혀로 나직나직한 동화 속 문장들을 읊었으리라. 너무나 따뜻해서 끓는 거품처럼 느껴지는 부질없는 이야기들을.

하지만 지금은 그 빛깔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피곤해 으스러진 눈동자를 바라보다 네인은 중얼거렸다.

“보육원에서 내 책은 많지 않았는데, 대부분 나보다 먼저 방을 쓰던 사람들이 놔두고 간 거였어. 챙겨가기엔 귀찮지만 버리기엔 성가셔서 두고 가는, 누구나 내용을 알 법한 책들 있잖아.”

“소공자나 메리 포핀스, 비밀의 화원 같은 거.”

“그래. 그런 거.”

두 사람은 잠깐 코가 닿을 거리에서 작게 웃었다. 어쨌든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다는 증명 같은 부분이 없진 않다.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네인은 한결 뭉근해진 라제쉬의 눈꼬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으며 생각했다.

“그런 책들에 나오는 삽화에선 집에 꼭 정원이 있었거든.”

하지만 그가 지냈던 보육원은 정원은커녕 혼자만의 방도 갖기 어려운 곳이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정원이 있는 집을 가지면서 끝나잖아.”

“그랬던가.”

“그래서 어쩐지 정원을 가진 집을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



호그와트처럼. 네인은 하마터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뻔했던 말을 주워 삼키며 턱을 들었다. 라제쉬는 벌써 흥미를 잃어가는 표정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보다는 입 아래에 잇자국을 어떻게 새겨야하는지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네인은 그의 기분을 살피며 보육원에서의 생활을 별 거 아닌 추억을 더듬는 것처럼 지나가는 투로 말하려 애쓰며 입을 열었다.

“누구나 그 시절에는 희한한 자기만의 고집이 있지. 그런 동화책을 읽는 나는 차라리 혼란스러웠어. 우산을 타고 날아온 메리 포핀스가 창문을 통해 들어올 거라고, 그리고 찻잔에 그려진 숲속으로 자기를 데려갈 거라고 믿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만.”

라제쉬가 작게 속삭였다. 그리고 깊게 입을 맞추었다. 느긋하게 헤치고 들어오는 서늘한 혀에 하려던 말을 빼앗기고 네인은 인상을 찡그렸다. 이미 허리 위로 입은 옷이 없었지만 라제쉬는 그로도 부족한지 실크 파자마 바지에 손을 가져가며 말했다.

“책을 많이 읽진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가 유쾌하게 끝나지 않는 건 알아. 절대 바라는 대로 되는 법이 없잖아. 듣고 싶지 않아.”

사실 네인이 하려는 이야기는 딱히 유쾌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이야기였다. 보육원에서 지내던 시절 네인은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 역할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는 그를 비껴갔기 때문이다. 그 뒤의 이야기는,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에게 생기는 모든 용돈을 팬찮은 우산을 사는 데 썼어. 아마 열두 개는 되었겠지만, 비가 오는 날마다 잃어버렸고 대부분은 남들이 훔쳐 갔을 거야.

하지만 재미없고 지루한 이야기다. 누구도 보육원의 아이가 용돈을 모아 우산을 사며 장우산을 살지, 단우산을 살지, 양산 겸용을 살지 고민하는 것에 흥미를 두지 않는다. 네인은 자신의 어린 시절이 딱 그 정도의 흥밋거리라고 느꼈다. 누가 이야기하면 오, 그래? 추임새를 넣기는 하지만 고개를 들지 않고도 들을 수 있는 이야기.

그에 비하면 라제쉬는 그의 인생에 찾아올 수 있는 가장 생생한 이야기일 것이다. 말하자면 다 똑같은 색으로 피어난 정원에서 혼자 일곱 가지 색으로 빛나는 날개를 가진 나비. 짙은 갈색 흡구덩이에 고인 물 위로 비치는 무지개색 햇볕.

라제쉬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정원 한구석에 켜둔 희미한 조명에서 새어드는 불빛에 의지해 보는 라제쉬는, 천 년 전에 만들어진 조각상처럼 희고 창백하게 바랬을 뿐 생생하다

말하기 어려웠다. 깜박이는 눈꺼풀의 긴 속눈썹도 단조로운 무채색이었다. 곧게 저를 뚫고 나가는 붉은 눈을 바라보다 네인은 무심결에 그 뺨을 쓸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내게 매달리는 너는 무채색 같은지. 그런 너여야 가질 수 있는 내가 무채색인 건지. 그리고 왜, 어떤 다채로운 때보다 농담을 잘못 섞은 그림자처럼 슬픈 지금이 더 내 것 같은지.

네인은 제 비겁함을 잡아먹은 승리감에 드리워진 꺾끄러움을, 몇 마디 더 그럴싸한 비유로 설명하고 싶었지만 마침 라제쉬의 혀가 섞여 미끄러지는 바람에, 모든 말을 잊어버렸다.

영국은 여름이 길지 않은 나라다. 여름이라고 해도 희뿌연 하늘에서 빗줄기가 내렸다가, 물 먹은 멀건 하늘이 되기를 반복하는 계절일 뿐이지만 어쨌든 10월이 지나가면서는 첫 서리가 내렸다. 두 사람이 함께 처음 맞는 겨울을 준비하면서 네인은 아주 바빴다. 라제쉬는 집 안의 일에서는 대체로 협조적이었지만 바깥으로 나가는 일은, 본인은 물론이고 네인에게도 엄격했으므로 방한용품들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에 정원이나 집 전체에 열선 처리를 하는 등의 대규모 공사는 무리였다.

자연히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났다. 제 손재주나 정성과는 무관하게, 물 먹은 흙으로 인해 뿌리가 썩어 죽어가는 식물들이 생겼다. 자신을 살게 하는 것으로 인해 죽어간다는 건 참 희한한 일이지.

어쨌든 네인은 왜 똑같은 날씨여도 호그와트의 정원은 그렇게 생생했는지 새삼 기억을 더듬었고, 그 결론은 모조리 '그것이 마법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면 허탈해졌다. 마법세계의 비료와 영양제를 아무리 퍼부어도 백합은 시들고 죽는다. 뿌리로 먹은 물을 잎으로 뱉어낼 수 있는 마법세계의 이그드라실 같은 식물을 심는 것 외에 대책이 없단 말인가. 네인은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일그러진 가지를 내리고 뺏어간 생각은 희한하게 하나의 뿌리로 흘러갔다. 그럼 나는. 내가 마법세계를 사랑한 이유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마침 라제쉬가 다가왔다. 뒤에서 제 어깨를 끌어안아 매달리는 그에게서, 으깨진 백합과 물 먹은 잎사귀가 섞인 냄새가 났다.

“아무 생각도.”

네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저 어떻게, 제가 마법세계에 대해 생각할 때면 라제쉬는 귀신같이 알고 다가오는지 궁금해하면서.

“오늘 저녁엔 뭘 먹을까?”

그 해 장마는 유난히 길었다. 장마가 끝나고는 잠시 폭폭 찌는 기간이 있었고 그동안 정원에는 여러 벌레들이 창궐했다. 이 끔찍하고 자살한 생명체들에게 점점 갇혀 먹히는 식물들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노하우가 생겼지만 그 이상으로 고생스러운 기간이었다. 땅신령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네인은 불현듯 그런 생각을 했다. 그건 정말로 갑작스러운 생각이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전율에 가깝게 오싹해졌다. 그전까지 네인은, 자신이 땅신령을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었던 것이다. 호그와트의 정원에서는 여러 땅신령의 바로 옆을 스쳐 지나고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 땅신령을 딱 한 마리만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신령들은 물론 성가시고 정원을 기어다니며 꽃을 으깨고 쥐어뜯지, 손가락 끝을 물어뜯는 건 물론이고 말이야... 하지만 호그와트의 정원을 보렴, 땅신령이 어림잡아 수백 마리는 살고 있을 텐데 멀쩡하잖니? 그건 그들이 나름대로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뜻이지.

땅신령이 제일 좋아하는 건 꽃가루와 꿀이지만 기본적으로 가리지 않기 때문에 정원의 벌레들을 잡아먹는다. 대신 꽃가루와 꿀이 묻은 몸으로 흙을 파고 바닥을 기며 수분을 돕는다. 설새 없이 흙바닥을 기며 고르는 그들의 습성 탓에 정원은 겨울이 되어도 얼어붙지 않고, 열기를 품은 날카로운 이빨과 손가락은 겨울에도 꽃이 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네인은 중얼거리다가 어이가 없어진 나머지 헛웃음을 지었으나, 썩고 죽은 식물의 시체더미 옆에서는 검혀해졌다.

이런 정원에서는 누구도 병이 나을 수 없을걸... 메리 레녹스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소녀였다고 한들. 콜린이 숨어들고 싶을 만큼, 건지 못하는 다리를 움직이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곳은 아니지. 네인은 가을로 접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줄어든 꽃 종류를 세다가 라제쉬에게 말했다.

“이 길 끝에 있는 머글들의 집 있잖아. 녹색 지붕 집.”

“응.”

라제쉬가 따뜻한 홍차가 담긴 찻잔을 손가락으로 문질렀다. 좋지 않은 징조였다. 그가 불쾌해하는 걸 느꼈지만 네인은 말을 이었다.

“발코니에 유리창을 대고 그 안에서 화분을 키우던데, 물론 키울 수 있는 화분의 크기나 수가 많지 않을 테지만 한 번 해볼까?”

“쓸데없어.”

“하지만 정원이 너무 살풍경하지 않은가 싶은데.”

조심스레 말하자 라제쉬가 손을 휘휘 저었다.

“어차피 정원에 나가 있는 때도 별로 없는걸. 내가 딱히 풍경을 즐기는 취미가 있지도 않고.”

어쩌면 네인은 설득되었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라제쉬는 정원을 그리 즐기지 않기 때문이다. 풍경을 감상하는 때는 드물고 그저, 멍하니 바라보는 허공에 풍경이 담겨있을 뿐임을 안다. 그가 지켜보길 즐기는 건 오로지 제 모습인 것도 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정원은 겨울인 채로 두고 같은 방에서, 함께 기대앉아 책이라도 읽고 라디오를 들으며 한 철을 나는 게 합리적일 수도 있겠지. 납득했을지도 몰랐다. 라제쉬의 그 말만 아니었다면.

“시들어야 할 건 시들게 뒀. 죽어야 할 건 죽게 두고.”

“.....”

“겨울은 그러라고 오는 계절이잖아, 얼어붙고 깨지다가 말라 죽는.”

말라 죽는, 다고 말하는 라제쉬의 입술에 유달리 혈색이 없던 탓이었을까. 아니면 그 입술에 새하얀 서리와 성애가 끼어 바스라질 것처럼 느껴진 덕이었나. 그도 아니면 시리고 섹스한 숨이, 귀로 흘러들어 제 머릿속에 쓸데없는 호승심을 불러들인 탓인지도 모른다.

네인은 꽃을 심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원에서는 누구도 행복해지지 않을 거야, 말라 죽는 게 당연한 장소가 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야.

점차 머릿속에는 갈 수 없는 어떤 공간에 대한 생각이 강해졌다. 마법 세계에는 그런 숲이 있다고 한다. 픽시와 유니콘이 사는 숲.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흠 사이로 흘러서 꽃송이는 주먹만큼 커다랗게 맺힌다. 흐린 날에는 드리워진 나무 잎사귀 안쪽에서 빛나는 물질이 이슬처럼 맺히고 픽시의 날개에서 떨어진 가루는 그 자체로 땅의 영양분이 된다고 한다. 어떤 식물도 시들지 않고 유니콘과 켄타우로스는 나이 먹을 뿐 늙지 않으며 재생과 성장을 반복한다.

...물론 이 이야기에 다소간 과장이 끼어 있다고 해도 머글들의 방식으로 가꾼 정원보다는 나을 것이다. 하지만 마법 없이 식물을 오래 보존하기란 정말로, 정말로 머글이 마법을 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다.

네인은 어떻게 해도 살려내지 못하고 시든 다섯 번째 히아신스를 신경질적으로 뽑아내며 생각했다.

아니,

이 정도라면 머글이 마법을 쓰는 게 쉬울 테지.

\*

가을이 깊어졌다. 아니 끝자락이나 밑바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네인은 정원에 처음 핀 메리골드 위로 작은 지붕을 만들어 주었는데 어제 마침내 그 지붕 위로도 서리가 끼었다. 이 대로라면 바로 내일 꽃이 얼어버려도 이상할 게 없을 것이다. 네인은 부질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주 방문하는 꽃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은, 아주 오랫동안 다른 나라에 살다 온 것 같은 수상쩍은 남자 둘이 자리 잡아도 이상하지 않을 동네였다. 다시 말해 사람이 적고 어떤 가게든 사람보다 더 적으며, 이웃 간의 교류보다 대문을 철저히 잠그는 문단속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동네라는 뜻이다. 주변 사람들이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것만은 편했으나 그 외의 어떤 점도 마법세계보다 좋을 게 없는 동네에서, 네인이 딱 하나 괜찮은 점수를 주는 가게가 있었다. 바로 그가 가드닝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근처의 꽃집이었다.

꽃집 주인은 네인보다 나이 들었을 게 확실한, 머리가 반쯤 벗겨진 남자였는데 처음 한 달 정도는 무척이나 무뚝뚝했다. 친절함도 녹턴 앨리의 마법사들보다 나을 게 없었다. 하지만 네인이 두 달 넘게 거의 매일 들르다시피 하자 점차 반응이 누그러지더니 이제는 네인이 사는 모종에 설명을 붙여줄 수준에 이르렀다.

“추위에 강한 꽃은 없을까요? 색이 화려한 것들로요.”

슬슬 겨울이라 색이 단출해질 것을 생각하며 묻자 꽃집 주인이 가게 안쪽에서 끄끙대며 뿌리가 깊고 잎이 가느다란 식물들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을 추천합니다. 겨울에도 최대 2주까지 꽃을 피우죠. 화려하진 않고 송이도 작지만 많이 심어두면 볼 만해져요.”

“2주는 너무 짧은데요. 혹시 더 길게 꽃을 피우는 건 없나요?”

“이봐요, 미스터.”

꽃집 주인이 코웃음을 쳤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을 원한다면 종이를 오리거나 그림을 그리세요. 푸른 장미보다 더한 걸 원하는군.”

머글들의 세계에선 그게 일반적이지. 겨울에 피는 꽃이 푸른 장미만큼이나 드문 세상 말이다. 네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눈앞에 다시 한번 마법세계의 모습이 어른거렸다. 호그와트에 있는 정원들은 비단 온실 속 정원이 아니어도, 겨울에도 새하얀 눈을 뚫고 붉은 장미를 피워냈다. 노움과 땅신령 덕에 건강하게 피어난 붉은 장미는 그대로 눈을 얹은 채 감상하기도 했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데 쓰이기도 했다. 그 모든 계절감이 망가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 봄과 겨울이 헛갈리는 그 세상을 네인은 좋아했다.

“나는 시들지 않는 정원을 봤거든요.”

“그래요? 어디 그리스나 이집트에 있는 건가?”

“필요한 건 약간의 노움과 땅신령이죠.”

지금의 네인은 농담을 건넬 기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의 변덕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머글이, 곰곰이 생각해도 알 수 없을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것. 약간의 심술과 우월감, 변덕에서 나온 농담은 그리 대단한 내용이 없었을 텐데도 꽃집 주인은 딱딱하게 굳어졌다.

“.....”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네인은 잎사귀 끝이 뭉툭하게 시들어가는 라넌큘러스를 유심히 바라보는 척하며, 내내 제 뒤통수 끝을 따라오는 시선을 느꼈다.

“어쩐지.”

한참 뒤 꽃집 주인이 지나가듯 중얼거렸다. 네인은 그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으나 굵어 부스

럼을 만들면 곤란해질 거라는 것을 알기에, 몇 가지 물건을 고른 뒤 지폐를 내밀었다.

“내내 말도 안 되는 걸 당연하게 상식처럼 요구하더라니. 당신 마법사예요?”

이런 질문을 언제고 머글들에게 받는 가정을 해본 적이 있다.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이질적인 제 모습에 농담처럼 묻는 사람들이 한두 명은 생길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실없는 헛소리로 웃어넘기면 된다고도 여겼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네인은 헛웃음을 지으며 넘기지 못했다. 아직도 그곳이 제게는 헛소리가 되지 못했다. 망연해진 그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던 꽃집 주인이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휘두르는 시늉을 하며 입 속에서 바람 부는 소리를 냈다. 네인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 쪽' 사람이라는 것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 그냥 어깨를 으쓱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자 특유의 표정이 지나가 기라도 한 것인지 꽃집 주인은 그것만으로도 확신한 모양이었다.

“그럴 줄 알았지. 댁도 뭔가 사정이 있는가 봐요.”

대체 뭐가?

네인은 약간 곤두선 채 웃었다. 주인은 전에 본 적 없는 부드러운 눈매를, 이를테면 동류를 보는 눈매로 하고 있었다.

“나는 스쿼피예요.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이 동네로 가출해 왔지만 다행히 내 형은 마법사라고. 내 부모님은 나를 끔찍한 괴물처럼 여겼지만 형은 나를 불쌍한 동생으로 여겨요.”

“안 됐군요.”

교과서 같은 대답이었으나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했다. 오히려 이런 날을 기다려 온 사람처럼 굴었으므로 네인이 부담감을 느낄 정도였다.

“마법세계의 꽃을 머글 정원에 심는 건 물론 불법이죠. 하지만, 이런 게 어떻게 내 정원에



있냐고 기절하는 시늉을 하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확실히 마법사들의 감각은 물리법칙을 신봉하는 머글들과는 다른 감이 있어서 그 정도의 변명으로도, 충분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수 없었다. 어쨌든 그가 하는 거라곤 마법세계의 식물을 제 작은 정원 한구석에서 키우는 것뿐이니 말이다. 마법세계의 비밀만 새어 나가지 않는다면야. 단속반이 와서 식물을 뽑아낸 뒤 똑같은 머글 식물을 심고 기억을 지워버리면, 하룻밤 새 정원의 구조가 좀 달라졌다 한들 큰 이야깃거리는 아니다.

그리고 네인은 그가 마법세계에서 자란 사람이 맞다고 확신했다. 마법사들은 항상, 쓸데없이 말이 많거나 불필요할 만큼 침묵하는 존재들이니까.

“내 말은, 당신도 마법사라면 알겠죠... 마법사들은 하나같이 자기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정원을 가꾼다면 더 그렇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다가, 주머니에 든 씨앗을 떨어뜨려 어떤 불행한 머글의 정원에 폭삭 쏟았다고 해도 있을 법한 일처럼 들리잖아요.”

“그렇기는 하겠네요.”

실제로 흔히 일어나는 사고다. 때로는 사고가 아닌 심술이기도 하지만. 자신들이 가진 비밀을 머글들의 정원에 쏟아내고 은밀히 지켜보며 낱낱대고 싶어하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자. 당신은 처음이니까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상대를 찾아서일까. 꽃집 주인은 흥분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지하실 바닥을 개조해서 만든 강철 문을 보여주었고, 네인은 머글의 기술의 극치 같은 곳으로부터 마법세계의 식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걸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겨울에는 당연히 꽃이 얼어 죽는 거라고 말하던 사람과 동일인물 같지가 않았다. 지금은 아주 오랫동안 이런 순간을 기다려 온 사람 같았다.

“이건 머글들의 장미와 라넌큘러스를 똑같이 닮았지만 마법식물이오. 한 번 꽃을 피우면 무조건 28일 동안 시들지 않고 물을 주는 사람의 눈동자 색깔을 닮은 꽃잎을 피워서 인기가 많

아요. ...혹시 동물을 키우나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아니요.”

“다행이군요. 이 식물은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자라는데, 자기보다 낮은 곳을 기어다니는 동물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하지만 위에 있으면 괜찮아요.”

별로 괜찮을 거 같지 않은 설명이었다. 여러 번, 아주 영리한 꽃이라 자신보다 덩치가 큰 생물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도 찡찡하여 데려오지 않았다. 얻어온 건 약간의 흙이었다. 이미 있는 식물들을 보강해줄 수준이면 족하다. 희한하고 수상쩍은 식물들이 피었다가 라제쉬가 불쾌해하면 곤란하니까. 네인은 오랜만에 양손 가득 묵직한 흙을 들고 정원에서 두어 시간을 넘게 보냈다. 라제쉬는 마뜩잖은 기색이었으나 서로가 알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담벼락을 넘지 않는 선에서는 네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한참을 몰두하여 정원을 꾸미다 보니 흙투성이였다. 욕조에 물을 받아 들어가기 전, 그는 셔츠를 벗다가 흙투성이로 엉망진창인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마법세계에서 받아온 흙에서는 고향의 냄새가 났다. 그저 흙냄새일 뿐이겠지만, 그랬다.

라제쉬는 겨울이 되자 말수가 적어졌다. 덩달아 네인의 긴장감은 높아졌지만 딱히 불안해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며칠을 지켜보며 대화해 본 결과, 날이 추워져서 활동량이 적어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는 겨울잠을 준비하는 새처럼 자주 등지에 머물렀고 몸을 웅크리며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럴수록 네인은 봄이 오면 나아질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정원은 날이 갈수록 색채를 빼앗겨갔다.

첫 서리가 내린 이후 처음으로 심었던 꽃의 모종이 완전히 고사했다. 정원에서는 점차 색이 사라져갔다. 화려한 꽃이나 우거진 녹음을 바란 것도 아니건만 희한하게 황량한 광경은 비밀의 화원이 아니라 잊혀진 황야와도 같았다. 네인은 문득 코 끝에 맡아지는 황야의 먼지 내음 따위를 맡았다. 멍하니 정원 한 구석을 바라보던 때 라제쉬가 다가왔다.

“겨울이 되면 말라 비틀어질 정원을 왜 그렇게 열심히 가꿨던 거야?”

"집에서는 할 일이 많지 않잖아."

완벽하게 머글들의 세상을 표방하는 작은 집에서는 빵 한 조각도 토스터로 굽고 있다. 여흥

이라고 해봐야 라디오에서 나오는 흘러간 영화의 주제곡이나, 스포츠 경기 중계를 듣는 정도다. 마법세계에서 하던 퀴디치나 마법사 체스 따위도 할 수 없다. 그렇대도 머글들처럼 공을 차는 것은 내키지 않았다. 그런 일은 적어도 셋 이상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성가시며, 모두와 부딪치고 소리를 높여야 한다.

"내가 왜 정원을 좋아하는지는 알 거 같아."

라제쉬가 중얼거렸다. 네인은 웃으면서 어깨를 짚은 그의 손을 어루만졌다.

“내가 정원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빛을 쬔고 물을 주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으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하늘이 푸르다가 붉어지는 것과 같은 당연한 말을, 선언식이나 하는 라제쉬의 말에 네인은 잠시 고개를 가웃거렸다. 물론 그렇게 인과관계가 확실하다는 것도 정원 일의 매력이기도 하지만 대전제는 어디까지나 라제쉬에게 보여주는 풍경을 꾸미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다. 반박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지만 차분한 그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다.

“겨울에도 잘 버티는 꽃들을 구해오려고 해.”

대신 네인은 마음을 먹었다. 이제는 마법세계의 모종을 가져올 때다.

“손이 많이 갈 것 같아 받아오지 않았지만, 꽃집 주인이 겨울에도 잘 버티는 꽃을 준다고 했거든.”  
“굳이?”

라제쉬가 미간을 찌푸렸다. 못마땅하게 늘어진 입꼬리 안쪽에 버티는 말들이 들리는 듯했다. 하지만 입술 밖을 나오지 않는 이상은 괜찮다. 네인은 그에게 다정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네게 꽃이 시들지 않는 정원을 선물할게.”

\*

꽃집 주인은 정말로 식물들을 사랑하는 게 분명했다. 스쿱이 아니었다면 호그와트로 납치되었을 인재였다. 머글세계의 식물에 마법세계의 기술을 접목해서 연구실을 차려도 차렸을 그는 스쿱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스쿱이기 때문에 마법용품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드래곤의 결석처럼 열기를 품은 돌을 땅에 묻어 모종을 보온시키는 법도 해박했으나 혹시 마법세계의 물건을 본 라제쉬가 힘들어할까 싶어 거절했다. 그러자 주인은 다른 방법을 제시했다.

"히포그리프가 등지에 쌓아두는 흙을 함께 덮어주면 좋을 텐데."

네인도 신비한 동물 돌보기 수업에서 들은 적이 있었다. 히포그리프를 포함한 마법 조류들은 겨울을 날 때 등지에 그들의 체액이 묻은 흙을 덮어두는데 그 흙의 열기는 계절 하나를 날 만큼 충분하다. 육안으로는 머글들의 흙과 차이가 없을 테니 딱 적합한 재료였다. 구하기 힘든 것만이 문제다.

“구할 수 있나요?”

“안 그래도 이번 달에는 한 번 형을 만나러 갈 생각이었거든요. 일 년에 한두 번쯤은 거기로 가서 필요한 걸 잔뜩 사오지. 이런 녀석 말이오.”

태연히 말하면서 그는 손으로 카운터 안쪽의 모종삽을 툭툭 쳤다. 마법이 걸려 있어서 화분을 고르고 있던 작은 모종삽이 다시 한 번 조심조심 움직였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네인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야 구해주신다고 하니 거절할 이유는 없지만 위험하니까 무리하지는 마세요. 그렇잖아도 거기는,"

뒤숭숭하니까요. 네인은 의식적으로 말을 피했다. 마법사. 잡종. 순수혈통. 이그니스. 네볼라. 이제는 입에 올려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뭐 별거 있겠소? 마법세계에 이따금씩 가지만 별로 대단한 일은 없었고. 나도 마침 정원에 덮을 흙이 필요하던 참이거든요."

그렇게 말하며 주인은 문 밖까지 그를 배웅해주었다. 괜찮다고 하는데도 구태여 그랬다. 네인은 모퉁이를 돌기 전에 꽃집을 한 번 돌아보았고 그 안에서 주인이 영업 중지 팻말을 붙이는 걸 잠시 바라보다 돌아섰다. 잘 다녀오라는 말을 건넬까 했으나 너무 새삼스러울 것 같았다. 바로 다음 날 돌아올 테니 모레에는 들러달라는, 주인의 말에 따르면 어차피 모레에 다시 만날 사람이었다. 그래서 네인은 명랑하게 손을 흔드는 주인에게 작은 고갯짓으로만 답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후로 꽃집의 문은 닫혀서 열리지 않았다.

네인은 '오늘 하루 쉽니다.' 팻말이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가는 동안 매일 그 길을 지나갔다. 그리고 시들어가는 화분들을 창문 너머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카운터 안쪽에만 있던 모종삽은 이제 전시대 사이를 돌아다니며 화분의 흙을 괜히 퍼내기만 반복했다. 마법에 걸린 삽이 화분의 흙과 함께 라넌큘러스를 파내서 던지는 걸 보면서도 네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이 가게의 주인은 뭘 하고 있을까. 어쩌면 형과 오랫동안 해후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지. 물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열흘이 지나가자 네인의 정원은 점점 초라해졌다. 네인은 애써 새로운 머글들의 가게를 찾지 않았던 탓이다. 행방불명된 꽃집 주인을 기다릴 의리는 없었으나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꽃집이 열리지 않는 이상 다른 가게들도 뻥했다. 물론 기대를 낮추면 다른 가게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들 집에서 너무 멀었다. 이 이상 귀가가 늦어진다면 라제쉬가 제 정원에 불을 지를 지도 모르고, 그걸 발견한 머글 소방관들이 찾아올 테고, 수근대는 이웃들과 수습할 수 없을 만큼 커지는 사고들... 참 볼 만한 꼴이겠군.

결국 네인은 오늘도 부질없을 걸 알면서 늘 가던 꽃집으로 향했다. 당연히 문은 잠겨 있을 것이다. 아무도 없는 가게 바닥에는 흙이 잔뜩 튀어 있겠지. 모종삽의 움직임이 슬슬 느껴져 가던데, 이번 주말을 넘기지 못하고 멈춰버릴지도 모르겠다. 그럴 때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역시 걸음을 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바와 다르게 꽃집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네인은 놀란 마음에 가게 안으로 달려갈 뻔 했다.

그러나 그 때 정장을 입은 사람 두명이 가게 안에서 나왔으므로, 네인은 경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걸음을 멈췄다. 쓸 데 없이 귀찮은 일에 휘말려 증언이라도 부탁한다면 신분증도 없는 그로서는 그만큼 번거로운 일이 없다. 하지만 상황은 그보다 조금 더 나빴다. 모퉁이에 서서 나가지 않는 그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는 그들의 중얼거림이 네인의 귀에 꽂혔다.

"...노움이..."

"땅신령들 말에 의하면..."

단서는 길고 장황할 필요도 없었다. 그것만으로 네인은 확신했다. 마법사들이다.

다시 보니 새삼스러운 점들이 눈에 띄었다. 아무리 머글을 흉내 냈다고 한들, 넥타이핀을 유니콘 모양으로 만들어 꽂고 다니는 정부 요원이 있을 리 없으니까. 그들 중 한 명의 넥타이 문양은 살라자르 슬리데린의 이니셜을 상징하는 문양이었다. 참 고상한 취미시군. 네인은 그만 이 자리를 떠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여기서 등을 돌려 뛰어나가는 것은 불필요하게 시선을 사는 짓이다. 그저 손목시계를 한 번 확인하는 척 교묘하게 얼굴을 숙인 뒤 자연스럽게, 늦겠다는 듯 종종걸음을 치면 된다. 그리고 네인은 잠깐 망각하고 있었다. 인생은 그가 원하는 대로 돌아간 적이 없고,

"네인?"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끔찍한 해방감을 기다렸을지도 모른다고.

"맙소사, 네인!!"

달려오는 사람이 눈에 익었다. 다행히 그는 다른 동료들을 내버리고 홀로 뛰어왔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았다. 설령 생긴다고 해도 지팡이도 없는 채 마법사 셋을 상대하는 건 무리였으므로 선택지는 없었다. 네인은 잠시— 라기엔 꽤 오랜 시간을 들이고야 깨달았다. 제가 한 때는 제 일부였던 마법 세계의 증명 같은, 학창시절 친구의 이름을 생각하느라 꽤 오랜 시간을 써야 했다는 것을.

“길리안?”

“이러니까, 이래서 그렇게 찾아도 안 보였구나!”

과격한 포옹과 다급한 인사가 머리 위에서부터 양동으로 퍼부어지는 것 같은 어질어질한 기분이었다. 몇 년 만에 보기는 해도 과하게 반가워하는 모습으로 미루어 추측하건대 제가 죽은 줄 알았던 모양이다. 이그니스 같은 단체들에 의해서. 그리고 물론, 길리안은 죽은 줄 알았다는 말을 대놓고 할 만큼 분별없는 성격은 아니었으므로 온화하게 돌려서 말했다.

"나는 네가 바닷속 동굴에라도 들어간 줄 알았어. 왜 '인어를 위하여'를 저술하느라 한평생 바닷속에서 나오지 않았던 괴짜 마법사처럼... 아니 이게 아니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우선,"

네인은 애써 웃어 보였다.

"자리를 좀 옮겨 줄 수 있을까? 네가 임무 수행 중인 건 알겠는데 우리가 눈에 띄어도 좋은 상황은 아닌 거 같아."

이 동네는 사람이 적어도 인적이 드물진 않았다. 해 질 녘 귀가가 늦어진 머글들 두엇이 이 쪽을 힐끔대고 있었다. 제발 그들이 저들의 유니콘 넥타이핀은 보지 못했기를.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불안함을 불러와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길리안은 그가 머글들의 시선을 걱정한다고 착각한 것 같았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이 만난 곳이 머글세계라는 걸 잊었던 말인가?

"괜찮아. 너와 내 쪽엔 은신마법을 걸었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졌다고 느낄까 봐 손을 못 썼지만 너와 난 괜찮아. 네 지팡이는 어디 간 거야? 아무리 머글세상에서 지낸다고 해도,"

길리안이 잠깐 생각하다 말을 돌렸다. 그는 다소 눈치가 없었고, 그래서 네인은 그와 오랫동안 안 괜찮은 관계로 지낼 수 있었다.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지팡이를 든 너는 꽤 괜찮은 인재였다고. 아직도 우리가 만나면 네 이야기를 하는 녀석들이 있는 거 알아? 물론 날 포함해서 말이야."

네인은 올라가는 입술 끝을 힘주어 참았다. 옛 친구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신에 대해서는 무슨 화제가 나오는지 혹시 그 중에는 라제쉬도 있는지, 궁금해졌으나 라제쉬의 이름이 나온다면 필연적으로 질문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의 이름은 그렇게 엮여 있었다. 네인은 담담한 척 답했다.

"오늘 이후로 네가 할 이야기가 더 늘어나겠네."

"그래. 너무 바빠서 숨 쉴 시간도 없어 보였으니 우리에게 소식을 전할 틈도 없던 게 당연했다고 하겠지."

"알았어, 미안해. 내 쪽에도 사정이 있어서."



그 정도였지만 묻지 말라는 뉘앙스는 전해졌을 것이다. 길리안이 짧은 휘파람을 불었다. 그것이 신호인 양 반가움 가득한 장난스러움이 사라졌다.

“그렇지만, 이걸 대답해 줘야겠어. 프루스트의 집엔 무슨 일이지?”

“프루스트가 누군데?”

순간 길리안은 굉장한 헛소리를 들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가 혼란스러운 눈을 이리저리 굴리다 짹짹 말했다.

"여기서 꽃집을 하던 스쿱 말이야."

“.....”

네인은 그가 왜 그런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지극히 공감했다. 드문 일이었지만 그랬다. 그리고 동시에 프루스트라는 이름을 가졌던 꽃집 주인을 생각했다. 단 한 번도 이름을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지독하게 필요에 의해 만났지만 꽤 괜찮은 이웃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렇게 좋아하던 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허무함이 마음을 스쳤지만 길리안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그가 지팡이를 까닥거리며 염탐하는 귀를 탐색하는 마법을 펼친 뒤 다시 말을 이었다.

"프루스트의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테러에 의한 사고사야. 며칠 전 이그니스의 테러활동에 휩쓸려 사망했어. 우리가 여기 온 건 조사와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야."

"스쿱을? 이그니스가?"

애써 목까지 찬 질문들을 참아내고 있었지만 지금은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이그니스는 마법부 테러가 목적이니만큼 머글세계에서 눈에 띄게 행동하진 않을 텐데? 순혈주의 반대를 표방하는 이상 스쿱은 그들의 테러 대상도 아니었다. 그 형은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이 알고 있던 꽃집 주인은 정말로, 그냥 꽃집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모종삽에 걸린 작은 마법에 만족하며 히포그리프의 둥지 흙과 용의 둥지 흙을 나누어 구분할 줄 알았던.

의아함 가득한 목소리에 길리안이 어깨를 으쓱했다

"운이 나빴지. 그 형을 습격했을 때 함께 있었던 모양이야. 형 되는 사람은 마법부의 숨겨진 순혈 혈통 찾기 행사에 후원하고 있었을 만큼 성실하고 선량한 사람이었는데."

폭발 주문이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맞은 주문은.

그 형이 있는 저택을 무너뜨리기 위해 쏜 주문에 형은 순간이동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스쿱인 동생은 제때 나오지 못했다. 형은 저택을 탈출했다가 동생이 나오지 못한 걸 알고 바로 다시 들어갔다. 그 때 두 번째 폭격이 가해졌다. 발견된 시체를 통해 알아낼 수 있던 정황은 거기까지였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네인은, 그 상황에 오갔을 법한 모든 주문들을 생각했다. 프로테고로 막으면 다시 아센디오, 스투페파이...

"이제 시대의 마지막인 거야. 네인."

길리안이 엄숙하게 선언했다. 네인은 정신을 차렸지만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다. 세상의 멸망을 말하는 것 같은 얼굴에 입술이 비뚤어질 뻔했다. 네블라와 이그니스가 한 시대씩이나 된다고 누가 그랬던가.

"이그니스도 그걸 짐작하고 있으니 더 악에 받쳐서 발악을 하는 거고. 앞으로 더 많은 테러와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기겠지. 이번처럼 선량하게 꽃이나 팔고 있던 스쿱이라고 해도 예외없이. 그러니까,"

다음 말은 네인으로서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마법부로 들어오는 건 언제?"

"뭐?"

눈이 가늘어지는 제 표정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한 듯 길리안의 말이 빨라졌다.

"눈치껏 내가 여기에서 적당히 정착해서 살고있는 건 알겠는데, 네 근처의 스컬이 피해를 입었어. 이 정도면 마법세계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너도 짐작할 거 아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마법사를 가진 편이 이긴다는 걸. 그러니 너라면 더할 나위 없지."

"마법세계를 나오면서는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그래? 그럼 지금부터 하면 되겠네."

길리안이 주위를 둘러보다 그나마 멀쩡한 화분 하나를 들고 왔다. 공교롭게도 메리골드 꽃이었다. 그것에 지팡이를 대고 무언가 중얼거린 뒤, 그가 네인에게 화분을 건네주었다.

"포트키 주문을 걸었어. 내 임시 사무실로 연결되는 포트키인데, 아마 열흘쯤 뒤에는 다른 곳으로 옮겼을 거라서 열흘 이후에는 쓸모없을 거야. 요즘 테러 활동이 활발해서 은신처는 열흘에 한 번쯤 바꾸거든."

머뭇거리던 길리안이 덧붙였다.

"그런 이유가 아니어도 네가 돌아오면 좋겠다. 네인 레글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소식을 전하고 싶다면 이걸 뽑아도 돼."

네인은 한참 동안 메리골드를 바라보았다. 그의 정원에 가장 먼저 심은 꽃. 죽은 스컬의 가계에 마지막으로 남은 꽃. 메리골드.

그 화분을 받아든 것까지가 기억의 마지막이었는데 어느새 집에 돌아와 있었다. 마법의 힘은

아니었고 그저 제가 약간 붕 뜬 채 걸어온 탓인 듯했다. 네인은 화분을 빙글빙글 돌리며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라제쉬에게 꽃을 보여주고 솔직히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가 선택한 것은 정원으로 바로 들어가는 쪽이었다. 그런 뒤 정원 깊숙이 화분째로 묻었다. 라제쉬의 눈에 띄지 않게 말라죽은 식물들 아래에 묻었지만 그 선명한 노란색이 자꾸 눈에 밟혔다. 모든 게 죽어가는 정원에서 유일하게 살아있는 메리골드. 가짜 꽃.

어떤 일은 라제쉬에게도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메리 포핀스를 믿고 기다리던 소년들 중에는 자신도 있었노라고. 말도 안 되고 허황된 소리라 비웃으면서도 어느 날은, 바람을 타고 창문을 통해 들어온 친부모의 손을 잡고 정원이 있는 집으로 가는 꿈을 잠시 꾸었다고. 용돈을 털어 우산을 사는 건 바보짓이라 생각했지만 메리 포핀스를 믿던 아이가 저보다 먼저 보육원을 떠난 날에는 주인 잃은 그의 우산을 주웠었노라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조차도 그는 주인공이 아니다. 그가 주인공인 세계는 라제쉬와 함께 하는 이 집을 넘어서지 않는다. 한 때는 마법사세계야말로 그가 주인공인 세계이길 기대했지만. 지금은 다시 지팡이 대신 우산을 쥔 소년으로 돌아온 것만 같다.

네인은 메리골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 화분에서 꽃을 뽑기만 하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단 한 번도 집처럼 느낀 적 없던 머글세상에서 그를 받아주었던 마법세계로. 다시 한 번 구부러진 지팡이와 나무 냄새 지독한 빗자루가 일상이 되리라. 그렇대도 라제쉬 없이 이 꽃을 뽑을 생각은 없었으나, 모든 게 죽어가는 정원에서 홀로 살아있는 메리골드의 노란빛이 선명했다. 네인은 어쩐지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라제쉬의 목소리를 들은 거 같았다.

겨울이 되면 시드는 게 맞아. 죽게 내버려 뒀.

네인은 눈을 감았다. 종말이 정원의 운명인 것처럼 너는 말했지만, 하지만 라제쉬, 너야말로 끝난 계절에 머물러서 살고 있는데...

\*

새벽에 잠을 깼는데 라제쉬가 곁에 없었다. 당황했으나 다음 순간 아래층에서 흐르는 인기척을 인지하고 계단을 내려왔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지 않은 채, 라제쉬는 창백하게 번쩍이는 TV를 응시하고 있었다. 라디오에서 친근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아주 옛날 연재하던 라디오

드라마 [우산 타고 날아온 메리 포핀스]의 배경음악이었다. 리메이크를 해서 새로 편집해 내보내는 모양이다. 좋아하지 않는 멜로디가 친숙한 척 컷바퀴를 타는 기분은 썩 유쾌하지 않다. 라제쉬도 흑백 영화를 바라보느라 라디오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으므로 전원을 껐다. 세상이 다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을 밟고 네인은 라제쉬에게 다가갔다.

“잠든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왜 나온 거야?”

라제쉬가 눈을 반쯤 감고 희미하게 웃었다. 네인은 그 옆자리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갔다.

“꿈을 꿔.”

“어떤 꿈?”

“모든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꿈.”

그가 길게 그어진 눈꼬리를 접었다.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즐거워져.”

아마 그것이 영화를 보는 맥락인 모양이었다. 꿈처럼 모든 사람과 사건을 관조하기만 하면 되는 것. 그의 어깨에서 마른 풀 내음이 났다. 네인은 저도 모르게 그를 감싸 쥐었다.

“라제쉬.”

“응.”

“날이 좀 따뜻해지면 해변으로 여행이라도 갈까?”

라제쉬는 답하지 않았다. 네인은 아무 말이나 지껄었다. 설 새 없이 지껄이는 TV 속 사람들

처럼 이 조용한 방을 아무 말로도 채우고 싶었다.

“바다가 싫으면 다른 나라도 괜찮겠지.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햇볕이 좋은 곳으로...”

말하면서도 궁금했다. 얼마나 슬퍼야 하는 걸까. 얼마나 슬프면 그렇게 스스로를 망치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보다 쉬운 걸까. 라제쉬에게는 분명 자신보다 기회가 많았다. 그가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지켜봤던 제가 더 잘 안다. 정원에 심어둔 씨앗보다 더 많은, 피어날 기회가 있었지만 모든 게 꺾였고 라제쉬는 영원히 겨울에 산다. 그런 그를 햇볕 비치는 봄으로 데려가는 건 제 의무다.

“정원에 못 보던 꽃이 생겼더라.”

잠자코 제 말을 듣는 줄 알았던 라제쉬가 탄소리를 했다. 네인은 깜짝 놀랐다.

“정원에 어떤 꽃이 있는지 기억하고 있어?”

“날 뭇로 보는 거야? 당연히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원을 가꿨는데.”

라제쉬가 어처구니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어떻게 자신을 의심하냐고 황당해하는 특유의 표정이,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바람에 목이 메었다. 목구멍 너머에서부터 불어오는 빛바랜 먼지가 촛불 어른거리는 양피지 내음처럼 칼칼하고 건조했다. 네인은 헛기침을 하고 미소 지었다.

“네가 정원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 내게 맞춰주느라 억지로 나와 있는 줄 알았지.”

“맞아. 정원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

라제쉬가 선선히 긍정하며 중얼거렸다.

“내가 관심 있는 건 이걸 꾸미는 네 습관이지.”

네인은 웃으며 받아치려고 했다. 정원을 가꾸는 이유는 너도 알잖아. 맨발로 다닐 때가 있는 너를 위해 부드러운 흙을 골라두고 싶기 때문이야. 그보다 나아가 꽃이나 풀, 기왕이면 색이 있는 걸로. 짓이겨져도 색을 남기는 걸로 네가 걸을지도 모르는 곳을 덮어두고 싶어서.

“내일은 나도 도와줄까? 겨울이라 정리할 게 많아 보이던데.”

네인은 메리골드 화분을 생각했다. 설령 어떤 의도로 받아서 어떻게 처분하려 했든 라제쉬가 화분의 정체를 알게 되면 또 한 번 무너질지도 모른다. 굳이 정원 일을 도와줄 필요도 없다. 서리를 넘어 첫눈을 기다리는 계절의 흙은 깊이 얼어서 맨손으로 헤치면 끄트머리가 너덜너덜해지게 된다. 네인은 라제쉬의 차가운 손을 끌어 어루만지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겨울의 흙은 얼어서 차가워.”

“네 손은 따뜻하고.”

겹쳐진 두 손을 바라보던 라제쉬가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슬슬 영화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이제는 방에 들어가 다시 그를 재워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네인이 엔딩 크레딧을 기다릴 때였다. 라제쉬가 잠에 겨운 눈을 깜박이며 중얼거렸다.

“네인. 그렇게 애쓰지 마. 시들어가게 댜.”

네인은 그것이 포트키를 말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

라제쉬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잠들었다. 네인도 함께 침대에 누웠다가, 라제쉬가 가장 깊이 잠들었을 시간에 일어났다. 정원에 심어둔 화분을 처리할 생각이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뽑아서 태우려고 라이터를 켜봤다가, 그 순간 큰 실수를 깨닫고 제초제를 켜봤다. 날이 밝기 전 새벽하늘이 어두울 때 끝내야 했다.

어제까지도 열심히 비료와 물을 부어댄 정원의 흙이 축축하다. 마른 잎 냄새 품어 불어오는 바람이 건조하다. 겨울이다. 희한하게 이런 날에는 어린 시절이 생각난다. 모든 동화책이 꽃피는 봄을 노래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겨울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한다. 역시 이런 곳에서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겠지. 심술궂은 소녀가 친절해지는 일도 다리를 저는 소년이 걷게 되는 일도. 일어나는 일은 그저 조용히 시들어가는 죽음뿐. 네인은 손전등을 찾았지만 오래전에 딱 한 번 건전지를 넣었던 등은 고장이 난 지 오래다. 불이 켜지지 않는다. 어두운 허공을 할퀴듯 휘저으며 걸던 네인은 이내 정원에 도착한다. 어느 구석에 메리골드가 있는지 더듬다 저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루모스.”

한 번 터지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다.

“루모스, 아씨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레파로...”



그가 1학년이 되자마자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주문부터,

“리덕토, 프로테고, 인센디오, 디핀도.”

그를 몇 번이고 구해줬던 강력한 마법들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주문들이 허공에 흩어진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은 손이 혼자 움직인다. 수천 번, 수만 번도 넘게 휘둘렀던 하나의 감각을 기억하는 손가락이 웅크려든다. 반 걸음은 정원에, 반 걸음은 마법세계에 걸친 채 네인은 계속 중얼거리고, 빛으로 쓸 만한 마법을 생각하다 저도 모르게 속삭인다.

“익스펙토 페트로눔.”

지팡이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유일한 주문이다.

“익스펙토 페트로눔, 익스펙토, 익스펙토. 페트로눔,”

저주 마법보다 늦게 익숙해진 마법이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라고. 마법세계가 그에게 마냥 친절하지 않고 폐쇄적이며 이따금씩, 오만하다고까지 생각했는데 특히 이 주문이 그렇다. 행복한 기억이 없는 너 따위는 주문을 외울 자격도 없어. 처음부터 배제하고 시작하는 듯한 주문에 오기가 생겨 더욱 더 악착같이 외웠으나 스스로의 힘으로 익힐 수 없던 유일한 주문. 그 주문이 성공한 첫 순간은 잊을 수가 없다. 라제쉬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된 날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주문을 외려면 가장 슬프고도 괴로웠던 시절에서 시작해야 한다. 다른 날과 함께 끔찍했던 날이다. 커다란 괴물의 그림자가 드리운 깊고 어두운 호수 근처를 바라보고 있다. 세상이 그 호수의 표면에 비치는 그림자와 다를 바 없다고까지 생각한다. 괴물들이 사는 곳을 반사해서 만들어진 세상에 자신은 목까지 잠겨 죽어간다. 하지만 그 때 라제쉬가 나

타나서, 환하게 웃으며 말한다. 대왕오징어가 사는 호수를 봐. 너무 깊고 어두워서 검은 색처럼 보이잖아.

그래서 네 얼굴이 잘 보여.

이 주문을 외울 때마다 라제쉬를 생각한다. 어쩔 수 없다. 라제쉬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알게 되는 감정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마법은 그를 통해서만 일어난다. 만약 제가 새로운 지팡이를 만든다면 그건, 제 심장을 심으로 해서 뼈마디를 깎아 만들어야 할 테지.

“네인 레글랜!”

누군가 그를 부른다.

“네인! 네인, 어딜 가는 거야?! 나를 봐!”

누군가가 아니다. 라제쉬다.

물론 알고 있다. 멈추고 돌아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인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바로 돌아서서 라제쉬에게 돌아가 웃으며 팔을 벌릴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말 그럴 것이다. 분명히.

하지만 그보다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포트키다. 그것에 어떤 마법이 걸려 있는지, 라제쉬의 날카로운 눈으로는 알아차리기 쉬울 것이다. 이미 자신을 부르는 그의 음성만 들어도 불안정이 느껴진다. 이대로는 또 자신이 그를 떠나려 했다고 오해할 텐데. 네인은 적어도 포트키를 밟기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순간 우연히 메리골드의 희미한 노란빛이 눈에 띈다. 하필 라제쉬와 반대 방향이다.

“나를 보라고!”

네인은 망설이다 라제쉬 쪽을 돌아본다. 득달같이 달려온 라제쉬가 가디건을 내던지고 새된 고향을 지른다. 혼란하게 일그러진 눈동자 빛은 잘 보이지 않지만, 엉망으로 부서지고 구겨져 시들기 직전으로도 저를 향해 똑바로 쏟아지고 있다.

“마법세계로 돌아갈 거지, 그렇지?! 그러려고 지금 나온 거지?! 저 빌어먹을 꽃, 저거 때문이지?! 시들지 않도록 마법까지 걸었잖아!”

라제쉬의 목소리가 정수리를 찌르고 지나가는 검처럼 날카롭게 느껴진다. 네인은 그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지만, 목이 답답하고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다. 라제쉬가 쥐고 흔드는 먹살에 숨이 막힌다. 작게 기침을 터뜨리며 네인은 몇 번 그를 부르지만 잘 들리지 않는다. 목덜미를 쥐어뜯는 손아귀 힘이 아프고 따가우나 동시에, 새하얗게 바랜 손가락 마디가 안타깝도록 처절하게도 보인다. 네인은 제 목줄기를 쥐는 그의 손을 감쌌으나 그보다 조금 빠르게 라제쉬가 손을 놓는다. 정신이 반쯤 나가 내달리는 그의 시선 끝에 포트키 화분이 있다는 걸 깨닫고 네인은 커다랗게 말한다.

“그리지 마.”

기침이 섞여서 새된 음성은 너무 작고 연약하다. 라제쉬에게 닿지 않는다. 네인은 다시금 힘을 주었다.

“라제쉬, 그만 해!”

하지만 라제쉬는 그 꽃을 뽑아야 한다는 계시라도 받았는지 멈추지 않는다. 오로지 그 꽃을 뽑아내 쥐어뜯고 으깨야만 진정할 기세다. 도리어 네인이 절박하다. 그걸 뽑는 순간 라제쉬는 마법세계로 소환될 테고, 지팡이도 없는 맨몸의 그가 마법세계에서 어떤 꼴을 당할지는 뻔하다.

“그만해, 그것만은 안 돼!”

“왜 안 돼, 내게 이제 안 되는 게 있어?!”

울부짖는 라제쉬를 끌어안아 네인은 아무렇게나 넘어진다. 품의 그가 다치지 않도록 머리를 감싸지만 동시에 온몸으로 내리누른다. 내리눌린 라제쉬가 신음하며 손으로 흠바닥을 긁는다. 네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든다. 라제쉬와 포트키까지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남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소름이 끼친다. 양 손을 힘껏 모아쥐고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눈물로 젖고 흠이 들러붙어 엉망인 채 라제쉬가 격렬히 흐느낀다.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눈물을 뚝 그치고 멎해진다. 더는 뽑아낼 물이 남지 않은 수도가 딱 멈추듯이. 물막만 남아 반들거리는 눈동자를 하늘로 향했던 라제쉬가 묻는다.

“모두 다 떠나고 나는 남겨지는데 다들 안 된다고만 해. 그럴 바엔 왜 끝내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야.”

“...진정해.”

네인은 그의 눈동자를 향해 안타깝게 속삭인다. 답을 구하는 질문이면 차라리 좋을 텐데. 네인은 알고 있다. 라제쉬는 이제 어떤 질문에는 답을 구하지 않는다.

“다 설명할게. 설명해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그 꽃만은 안 돼.”

“대체 왜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라제쉬. 날 떠나지 마.”

“대체 어찌라는 거야...”

고저 없이 중얼거리던 라제쉬의 얼굴이 다시 일그러진다. 그가 몇 번 몸부림을 친다. 발버둥 치며 네인을 벗어나 어떻게든 메리골드를, 그렇게 보이는 포트키를 찢어발기려 손가락을 구부린다. 하지만 네인은 죽을 힘을 다해 라제쉬를 부동켜안는다. 한참 뒤에야 라제쉬가 사지를 늘어뜨리며 속삭인다.

“대체 뭘 어찌자는 거야? 감히 네가 그딴 말을 해?”

라제쉬의 눈에서 눈물이 설 새 없이 떨어진다. 네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 그의 귀에 두서없이 늘어놓는다. 진작부터 해야 했던 설명들이 흙알갱이처럼 라제쉬의 눈가로 툭툭 떨어진다.

“모종을 사러 가던 가게의 주인이 스куп이었어. 그에게서 몇 개 화분을 얻어왔을 뿐이야. 단지 그 뿐이고 어떤 계획도 없었어.”

“여기를 불태워 버리고 싶어. 그래도 돼?”

“계획이 있었다면 오로지 정원을 꾸미고 싶다는 것뿐이었어. 영원한 봄인 것처럼 꽃이 지지 않는 정원 말이야. 그걸 위해서 담도 더 높게 설치하고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만들었어. 너도 보이잖아.”

“내일 아침이 되면 정원 따위 다 불태워 버리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자. 여긴 싫어.”

하지만 때를 놓친 설명은 더 이상 아귀가 들어맞지 않는다. 라제쉬가 계속 말한다.

“네인. 쓸 데 없는 짓은 더 이상 하지 마. 네가 날 위해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여길 불태워버리는 거야.”

“다 너를 위한 일이었어!”

네인은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인다. 땅을 짚고 허리를 세워 라제쉬를 내려보며 고함을 지른다. 화가 난다.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해주지 않는 라제쉬에게. 그보다는 슬프고 괴롭다. 저의 어떤 노력도 닿지 않는 그의 슬픔이 슬프다.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는 깊고 어두운 호수 아래로 잠겨간다. 아무리 꽃을 심어도 그의 정원에는 봄이 들지 않는다.

“이게 다 너를 위한 정원이었는데. 내가 뭐하러 여길 꾸미고 있었다고 생각해? 네가 또 한번 맨발로 뛰어나와도 다치지 않도록, 널 해칠 수 없는 것들로 채우고 싶었던 말이야.”

스스로 생각해도 맥없는 고백이었으나 반향은 있다. 라제쉬가 숨을 천천히 몰아쉰다. 마른 가슴이 들썩이고 배가 움푹 패도록 숨을 쉬던 라제쉬가 마침내 허탈한 헛웃음을 터뜨린다. 네인은 그 앙상한 웃음을 가만히 듣고 있다. 마른 가지를 스쳐가는 메마른 겨울바람 같은 웃음. 삭풍 같은 소리 끝 라제쉬가 붉게 물어진 눈을 휘며 웃는다.

“쓸 데 없는 짓이었어. 네인 레글랜. 내가 원한 건 딱 한 마디였다고. ‘다시는 네가 날 찾아 뛰어 나올 일은 없을 거야.’”

“.....”

“‘늘 네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너와 모든 걸 함께 할게.’ 하지만 너는 대신 정원을 꾸미잖아.”

같은 말이잖아. 함께 하고 싶지 않다면 뭐하러 이 정원을 꾸미겠어. 네인은 그렇게 말하고 싶다. 하지만 라제쉬가 마지막으로 속삭인다.

“그러면 내가 다시 멀쩡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처럼.”

네인은 무언가 반박하려고 한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늘 그렇다. 자신은 미묘하게 라제쉬를 한 걸음씩 놓치고, 라제쉬는 애매하게 반 뼘쯤 멀리 있다. 있는 힘껏 손을 뻗어 허우적거리야 간신히 잡아 품에 끌어안을 수 있을 뿐. 이번에도 네인은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헤집다가 어느 순간 깨닫는다. 정말로 가꾸고 싶던 건 정원이 아니라 라제쉬였다는 것을.

정원을 가진 집. 어린 시절부터 항상 갖고 싶던 것이다. 엉망진창인 정원도 함께 달려왔지만

어떻게든 할 수 있다. 말라 죽어가는 식물은 어떻게 살려내지? 충분한 햇볕과 물을 주고, 말라붙은 가지를 쳐내고, 영양이 풍부한 흙으로 감싸는 것. 그러면 시든 나뭇가지에서도 작고 푸른 잎이 언젠가 나오지. 물론 똑같은 식물은 아니고 지나간 봄은 오지 않지만, 어찌겠어? 그래도 푸르러지면 그럴싸해지잖아. 꼭 봄이 돌아오는 것처럼.

시들어 가게 댜. 네인.

네인은 벼락처럼 꽃히는 라제쉬의 속삭임을 떠올린다. 귀가 아린 듯한 착각이 들고 이내 머리까지 울렁거린다. 눈을 꼭 감고 고개를 흔든다. 이미 지나간 그들의 봄이 눈물나게 황홀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감은 눈 속에서 그려진다. 찾아 헤매던 광경이다. 심술궂은 소녀도 상냥해지고 몸이 아픈 소년도 건강해지는 정원.

하지만 황무지 같은 정원에 빛이 드는 광경을 보면서 소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봄을 원한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푸르러지는 정원을 보며 어떤 기분이었을까? 운명에 두 다리가 짓눌리는 기분은 아니었을까? 그 애가 정원을 완성하는 순간 예전과 똑같은 정원에서, 예전과 같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아무도 자신과 함께 머물러 주지 않는다는 고독이 그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찾아 온다면. 너는 무슨 생각을 할까.

목이 맨다. 눈가가 저리고 아프다. 네인은 흙에 팔꿈치를 기대 댜 잠시 소리도 눈물도 없이 운다. 잠긴 목에서 애써 꺼내는 목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서 스스로도 알아들을 수가 없다. 뱀이 쉼쉴대는 소리처럼도 들린다. 그래도 네인은 계속 전한다.

있잖아. 라제쉬.

아주 많이 노력했어.

내가 보는 것 이상으로. 정원이 있는 집을 가졌다면 마땅히 그래야 하니까. 이 정원을 다시 피워내서 휠체어에 앉은 소년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 말이야. 하지만 잘 안 됐어. 노력해도 되지 않았어. 마법을 쓰지 않는 채로는 어떻게 해도 살려낼 수 없었어. 지팡이가 없는 나로서는 꽃 하나 새로 피워낼 수 없었고 기적이 없는 우리는 다시 봄으로 돌아갈 수 없겠지. 나는 시든 꽃이 되살아나는 어리석음을 기다리고 너는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멸망을 기다려. 계절은 바뀌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고 슬픈 채 시들어갈지도 몰라. 그래도 함께 머무를 수 있어. 아니.

그래서 함께 머무를 수 있어.

네인은 천천히 라제쉬의 손을 잡는다. 그 손은 아주 차갑고 단단해서 꼭 대리석 석상의 부드러운 표면을 매만지는 기분이 든다. 그 손을 어루만지고, 발강게 얼어붙은 코 끝과 뺨을 쓰다듬으면서 네인은 중얼거린다.

“네가 지팡이를 태운 날 그 재를 굴어서 정원 구석에 묻었어.”

왜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눈을 깜박거리는 라제쉬는 당황하고 놀라는 걸 넘어 약간 겁먹은 것처럼도 보인다. 제가 그 지팡이를 그리워한다고 생각하기 전에, 네인은 다시 한 번 힘주어 말한다.

“원한다면 같이 이 정원을 태울게.”

“.....”

“그 재까지 전부 네 거야. 전부 가져가.”

라제쉬는 뭔가 말을 하려고 한다. 그런 표정이다. 벌어진 입에서 태운 잿가루를 뱉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창백한 얼굴로. 기뻐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은 무표정으로 입술을 달짝거린다. 붉은 눈동자에 검은 그늘을 드리운 채, 라제쉬가 뒤로 머리를 기댄다. 무너지듯 바닥에 몸을 맡기고 턱을 치켜든다. 네인은 얼른 그를 다시 한 번 쓸어안는다. 이번에는 라제쉬는, 네인의 어깨를 꼭 움켜쥐고 손가락을 깊이 박아넣는다. 도망치지 않는 걸 확인하고서 그가 속삭인다.

“네인. 시들어가게 댜.”

지나간 계절은 돌아온다. 하지만 돌아오는 봄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한 번 시들어 죽은 건 되살아나지 않는다. 물을 주고 보살펴서 되살아나는 라제쉬가 예전의 라제쉬와 같을 수 없듯이. 네인은 제가 바라는 봄과 라제쉬가 바라는 봄이, 정원이 같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다. 정말로. 정말로 라제쉬의 말대로 이 모든 게 헛짓거리였을 뿐이다. 네인은 모든 걸 확인한 사람 특유의 홀가분함으로 천천히 입술을 들어올린다. 웃는 모양으로 구부러진 입술을 라제쉬의 차가운 입술에 맞추고, 저와 같은 모양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대로 말한다.

“그럼 같이 말라가야겠네.”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라제쉬가 바라던 오답이라고 네인은 확신한다.

\*

병든 소년을 위해 화원을 꾸몄던 소녀는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게 된 소년 옆에 거울에도 머물렀으리라. 제 두 손으로 꾸며놓은 박제된 정원에서.

\*

네인은 출근하면서 힐끗 정원 구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메리골드가 피어 있던 곳은 이제 텅

비어 아무것도 없었다. 마법이 걸린 꽃은 그 힘이 다하기 전에는 시들지 않을 걸 알았기에 약을 부어 죽여버린 탓이었다. 암녹색으로 삭아가던 구원이 어디로 스뻤는지는 알 바가 아니었다. 삭아 스민 게 어디 그 뿐이라. 이 정원 어딘가에는 지팡이를 태우고 남은 재가 새카맣게 스며들어 조용히 침잠하리라. 새로운 테라리움은 한 뿌리의 꽃도 한 가지의 잎도 피지 못한 채 바람 한 점 들지 않는 유리 속에서 평온하리라.

하지만 상관없었다. 오늘도 라제쉬의 맨발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네인은 빙그레 웃으며 정원을 가로질러 나갔다.

그거면 됐다.

written by. 길  
commissioned by. 에비